

아파트 보조부엌의 유형별 개조특성에 관한 연구

The Remodeling Characteristics of Various Types of Secondary Kitchen in Apartment House

이주희*
Lee, Joo-Hee

양세화**
Yang, Se-Hwa

오찬옥***
Oh, Chan-Ohk

Abstract

The study analyzes the remodeling characteristics of the four different types of secondary kitchens in apartment house based on their floor plans. The secondary kitchens are categorized into side placement, back placement, back placement with extensions on both sides, and back placement with an extension on a single side. The twelve apartment complexes in Ulsan were selected so that they may all consist each of the four types, and answered the survey. The classified traits of secondary kitchen were examin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floor plan and remodeling. Side placement and back placement with extensions on both sides mostly used glass hinged doors. Back placement and back placement with a single side extension used glass sliding doors. It was found that the majority of the floor materials consisted of both wood and tiles, except for side placements, where only tiles were used. The sizes of the back placements with both and single side extensions were the largest. The side and back placements were rarely renovated, however, back placements with both and single side extensions went through massive remodeling.

Keywords : Secondary Kitchen, Apartment House, Remodeling Characteristics, Types of Secondary Kitchen

주요어 : 보조부엌, 아파트, 개조특성, 보조부엌 유형

I. 서론

1. 연구배경

주거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환경이 바뀌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아파트 주거에서의 공간 계획은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보이고 있다. 1962년 마포아파트 9평형에 처음 등장하였던 다용도실(백혜선, 박광재, 2000)도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 위치와 면적, 시설과 설비는 물론 그 기능과 명칭 등에 있어 변화를 보여 왔다.

1998년 분양가 자율화는 다용도실에 있어 변화를 초래하는 한 계기가 되었다. 건설업체들은 새로운 평면 개발 전략의 하나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확장하여 전용공간처럼 사용하게 하는 방안을 선보였다(황인환, 박인석, 1999). 특히 부엌 후면에 위치한 발코니 공간은 보조부엌 또는 보조주방이라는 명칭의 공간으로 제공되면서 수요자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써 다용도실로 대변되던 아파트 가사지원 공간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보조부엌이란 기존의 다용도실이나 후면 발코니에서 이루어지던 세탁과 수납 기능 외에 냄새나는 음식의 조리라는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과 설

비가 제공되는 새로운 개념의 가사지원공간을 말한다. 처음 시도단계에서는 4, 50평대의 비교적 큰 규모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제공되던 보조부엌은 최근 들어서는 중소형 아파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별도의 취사 기능을 강조하며 제공되기 시작한 보조부엌은 그 의도와는 달리 실제 취사에 이용되는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가구는 자신들의 요구에 맞게 이를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주희, 2005). 이러한 상황은 보조부엌의 계획 의도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이에 따른 피드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보조부엌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보조부엌의 유형에 따른 개조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거조절의 한 방법인 개조는 가구의 주거에 대한 불만족 요인인 결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함은 현 주거에 대한 평가에서 얻어진다. 따라서 보조부엌의 개조 특성에 대한 분석은 이 공간에 대한 거주가구의 실질적인 요구를 도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갖는 또 다른 의의는 보조부엌의 개조 특성을 조사함에 있어 보조부엌의 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즉 부엌과의 연결 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보조부엌의 유형은 보조부엌 본연의 기능 수행은 물론 연계공간인 부엌에서의 가사작업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부엌을 포함한 전체 실내 공간의 계획

*정회원(주저자), 울산대 대학원 석사
**정회원(교신저자), 울산대 주거환경학과 교수
***정회원, 인제대 디자인학부/유니버설디자인연구소 교수

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보조부역으로 제공되고 있는 후면발코니 활용에 대한 평가이자 향후 더욱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보조부역의 유형별 개조특성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조부역의 효율적 활용에 유용한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부역의 유형에 따른 물리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보조부역의 유형별 개조 특성을 조사, 분석한다. 셋째, 보조부역의 유형별 희망 개조내용을 파악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보조부역의 개념 및 특성

보조부역은 후면발코니 공간의 확장을 통해 생겨나는 여유 공간에 취사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별도로 갖춘 '제 2의 부역'을 말한다. 건설회사의 보조부역 계획 의도는 부역에서의 가사작업을 지원함은 물론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을 부역이 아닌 이곳에서 조리하게 함으로써 냄새가 실내 공간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김은중, 2003; 이연숙 외 3인, 2004; 오혜경 · 김도연, 2001; 신중진 · 임지영, 2000; 소윤경 · 하미경, 2002). 보조부역은 '보조주방'이라고도 부르며, 아파트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더욱 보편화되는 추세이다(소윤경, 2000; 심영섭 · 김두식, 2003).

일반적으로 보조부역의 기능은 크게 취사와 세탁, 그리고 수납으로 구분된다(최세미 외 2인, 2001; 한지영, 2002). 취사를 위해서는 저장식품의 보관이나 쓰레기 분리수거, 믹서(mixer)나 약탕기 같은 소형 주방가전의 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된다(소윤경, 2000; 신소영, 2002). 세탁 기능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조부역의 작업대에 세탁기를 빌트인 하거나 또는 세탁기를 둘 공간을 따로 계획하며 동시에 세탁물이나 세탁에 필요한 물품의 수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흔히 보조부역은 창문이 외기에 면하게 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수납은 작업대의 하부장이나 측면에 설치된 장을 이용하도록 계획된다.

보조부역의 공간 특성을 다룬 선행연구(소윤경, 2000; 신소영, 2002)를 종합해 보면 보조부역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가사작업을 위한 전기, 가스, 수도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둘째, 보조부역 가사작업대에서 야채 다듬기, 생선 굽기, 튀김, 곰국, 약 달이기 등의 장시간 요리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셋째, 애벌빨래나 손빨래, 다량의 야채 다듬기 등을 위한 물 쓰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바닥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

2. 아파트 보조부역에 관한 선행연구

보조부역은 최근에 지어지는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에서 공급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보조부역에 관한 연구경향을 보조부역 및 보조부역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다용도실과 후면발코니 등의 가사지원 공간을 다룬 연구들까지를 포함하여 알아보았다. 다용도실, 후면발코니, 보조부역 등 가사지원 공간에 관한 연구 대부분은 보조부역을 바람직한 가사지원 공간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보조부역의 구체적인 사용특성이나 요구 사항은 아파트 평수나 그 곳에서 이루어지는 가사행위의 내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30평 미만의 소형 평형은 대부분 보조부역 없이 다용도실, 세탁실, 창고가 부역의 가사지원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30-60평 이상의 중·대형 평형의 경우는 80%가 보조부역을 설치하여 가사지원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소윤경, 2000). 일반적으로 전용면적이 작을 경우 보조부역 대신 세탁실이나 다용도실이 제공되지만 30평형대 이상의 중·대형 평형에서는 전용면적이 커지면서 세탁실이나 다용도실의 기능 외에 다른 작업 기능이 결합된 보조부역이 별도로 마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고층아파트 보조부역 공간의 평균 면적은 30평형 이하 소형 평형대에서는 4.05 m², 40-50평형의 중형 평형대에서는 4.26 m², 60평형 이상의 대형 평형대에서는 6.83 m²으로 평형이 클수록 보조부역의 면적 또한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심영섭 · 김두식, 2003).

한지영(2002)은 가사 분담유형을 주부전담형, 주부분담형, 외부시설이용형으로 분류하고 가사공간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40평대 주택에서 많이 나타나는 외부시설이용형은 부역의 환기시설 확보와 후면발코니에 보조부역을 설치하는 데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 40평대 이상의 아파트 후면발코니에는 보조부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보조부역의 사용실태를 통해 앞으로의 보조부역에 대한 요구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파트 수납 공간에 대해 조사를 한 신소영(2002)은 보조부역에서의 취사, 세탁 및 수납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세탁 보울(bowl) 설치, 세탁 후 바로 건조시킬 수 있는 공간, 빨래 보관함의 상부 위치, 물 사용 공간 확대, 식품과 조리용품 및 제사용품 등의 보관 공간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파트 차별화 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을 조사한 이연숙 외 3인(2004)의 연구나 박영순 외 3인(200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차별화 계획요소로 손빨래 공간 설치, 가스시설과 환기,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 수납공간의 문 설치, 물 쓰는 공간 마련, 빨래 건조대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서울 상계지구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다용도실을 조사한 성기용(1998)의 연구 결과에서는 다용도실이 세탁 작업, 장독 및 부역 식기의 보관, 폐품 및 연료 보관 등 창고와 같은 용도로 쓰이고 있었으며, 손빨래

공간 설치, 물 사용 공간 확보, 김장을 위한 공간, 수납 공간 등에 대한 요구를 함께 조사하였다. 최세미 외 2인 (2001)의 연구에서는 취사와 관련하여 냄새가 강한 음식의 조리, 장시간 요리, 채소 손질 등의 기능이 이루어질 것인바, 세탁과 관련해서는 손빨래 공간 설치, 물 사용 공간 확보, 세탁과 건조공간의 통합을 요구하였다. 또한 수납과 관련해서는 식품·조리용품 보관, 수납공간 확보, 세탁관련 물품의 수납, 기타 겨울철 바닥 보온문제, 쓰레기 분리수거 등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다. 김진영 (2004)은 아파트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사작업 공간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다용도실 기능을 지향하는 유형은 가사지원 공간을 냄새나 연기가 많은 음식 조리, 입식보다 앉아서 가사 일을 할 수 있는 물 사용 공간의 기능 강화, 수납기능의 강화, 다량의 채소를 씻기 위한 공간의 필요, 저장음식과 감자, 마늘, 양파 등의 보관 장소로서의 기능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 보조부역에 대한 요구를 조사한 선행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보조부역에 대한 요구는 세탁 기능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수납, 취사, 기타의 순이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울산광역시의 공동주택 건립현황 (울산광역시청, 2004)을 바탕으로 2004년 10월말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 중 아파트 분양 시 사용되는 팜플렛에 ‘보조부역’, ‘보조주방’, ‘제2의 부역’을 제공한다고 광고한 12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로 한정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울

표 2. 조사대상 아파트 보조부역의 유형 분류

유형*	평면형	예시
측면 배치형		부역의 측면 (좌 또는 우)에 위치함
후면 배치형		부역 너비만큼의 크기를 가지며, 후면에 위치함.
후면 양방향 확대형		부역의 후면에 위치하며 후면의 좌·우 양방향으로 확대되어 있음.
후면 일방향 확대형		부역의 후면에 위치하나 측면(좌) 또는 측면(우)의 일방향으로 확대되어 있음.

*보조부역의 유형별 명칭은 부역을 중심으로 본 보조부역의 위치에 따라 연구자가 명명하였음.

산시에는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에 총 38개 단지(남구 14개 단지, 중구 9개 단지, 북구 6개 단지, 동구 9개 단지)가 후면발코니공간에 보조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38개 단지의 보조부역 평면을 살펴본 결과 부역을 중심으로 한 보조부역의 위치에 따라 측면 배치형, 후면 배치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후면 일방향 확대

표 1. 아파트 보조부역에 대한 요구 사항

요구사항		연구자	김진영 (2004)	이연숙 외 3인 (2004)	소윤경 하미경 (2002)	신소영 (2002)	한지영 (2002)	최세미 외 2인 (2001)	성기용 (1998)
		취사	냄새가 강한 음식 조리공간	●		●		●	●
	장시간요리(끓임·절임)	●				●	●	●	
	취사보조			●		●			
	채소손질	●				●	●		
	별도의 오븐설치		●						
세탁	손빨래 공간 설치(손 세탁작업대 설치)	●	●	●	●	●	●	●	
	물 사용 공간 확보	●	●	●	●	●	●	●	
	세탁물 건조 공간 확보(빨래건조대 설치)	●	●	●	●	●	●		
수납	장독대 보관					●		●	
	식품/조리용품 보관	●			●	●	●		
	충분한 수납공간 확보(상부장 수납공간)	●	●	●	●	●	●		
	세탁관련물품 수납 (세제류, 비누, 다라이 보관, 세탁물, 휴지 등)	●		●		●	●		
	기타용품 수납(제사용품, 운동기구 등)	●			●	●			
기타	면적 확대(확장)	●						●	
	바닥 보온문제						●		
	쓰레기 분리수거/폐품 보관					●	●	●	

표 3. 조사대상 아파트의 규모와 보조부역의 규모

보조부역 유형	아파트 평형대	조사 대상 평형	전체 세대수	조사 세대수	보조부역 면적 (평)
측면 배치형	30평형대	32	300	11	6.08 (1.8)
		32.3	27	17	8.01 (2.4)
		32.5	154	2	8.01 (2.4)
측면 배치형	40평형대	40.3	66	7	8.08 (2.4)
		42.2	42	11	8.51 (2.6)
		43	141	12	8.77 (2.7)
		48	60	14	10.08 (3.1)
		48	96	4	10.08 (3.1)
		48	56	5	10.96 (3.3)
측면 배치형	50평형대이상	81	64	7	9.12 (2.8)
후면배치형	40평형대	49	98	15	10.79 (3.3)
후면양방향 확대형	30평형대	34.1	318	5	13.22 (4.0)
		35	272	25	9.17 (2.8)
후면 일방향 확대형	30평형대	32	84	15	8.15 (2.5)
		32	480	4	13.60 (4.1)
		32A	330	18	9.91 (3.0)
		33.9	517	21	8.15 (2.5)
		34	16	10	5.79 (1.8)
		34	115	24	8.73 (2.6)
		34.3	240	14	8.80 (2.7)
39	28	1	12.80 (3.9)		
후면 일방향 확대형	40평형대	43.2	255	38	11.73 (3.6)
		43.9	95	11	12.35 (3.7)
		47.9	72	5	17.02 (5.2)
후면 일방향 확대형	50평형대이상	54.1	82	14	10.56 (3.2)

형의 총 4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보조부역의 유형별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설문조사는 30평형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단지는 전체 38개 단지로부터 보조부역의 4가지의 유형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재분류한 후 최종적으로 12개 단지(남구 4개 단지, 중구 2개 단지, 북구 4개 단지, 동구 2개 단지)를 선정하였다<표 3>.

2.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한지영(2002)의 “가사행태를 통해 본 아파트 가사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와 김진영·강순주(2005)의 “아파트 거주자의 가사작업공간 사용행태와 의식”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가구 특성 - 연령, 학력, 직업, 가족 수, 만자녀 연령, 월평균 소득, 주택규모, 소유형태, 거주기간
- 2) 보조부역의 특성 - 부역과의 연결형태, 보조부역의 바닥 마감재(타일, 마루, 장판 류)
- 3) 보조부역의 개조특성 - 개조 여부, 개조 내용, 개조 이유
- 4) 보조부역의 희망 개조내용 - 개조 의향, 희망 개조내용, 희망 개조이유, 이사 오기 전 개조된 내용, 개조된 내용에 대한 만족도

3. 자료수집

자료는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05년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주간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분류된 보조부역의 4개 유형과 평형에 따라 선정된 12개 아파트 단지의 30평형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총 330부를 배부하였다. 그 중 미회수 된 18부와 부실 기재된 2부를 제외하고 총 31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Base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교차분석(cross-tabulations)을 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부인 연령은 30대 이하가 47.1%이고 40대가 38.0%로 평균 연령은 41.8세였다<표 4>. 남편 연령은 40대가 51.9%, 30대 이하가 29.3%고 평균 연령은 46.2세로 부인과 남편 모두 40대 이하가 전체의 80% 이상이었다. 가족 수는 4명이 63.0%로 가장 많았으며, 2-3명이 20.9%, 5명 이상이 16.1%의 순이었으며 평균 가족 수는 3.9명이었다. 만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한 가족 생활주기는 초등교육기가 34.5%, 중·고등교육기가 32.5%, 미취학아동기가 18.4%의 순이었다. 부인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42.1%,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37.5%였으며, 남편 학력은 대학교 졸업 이상이 55.2%,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8.1%였다.

부인이 직장을 갖고 있는 가구가 13.0%, 전업주부인 가구가 87.0%의 분포를 보여 조사대상 가구에서 전업주부의 비율이 취업주부 비율보다 약 6배 이상 높았다. 남편 직업은 사무직이 4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판매·서비스직이 22.9%, 생산직이 22.5%, 전문직이 7.4%의 순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300-400만원 미만이 28.1%, 500만원 이상이 26.5%, 400-500만원 미만이 21.6%의 순이었으며 400만원 이상이 48.1%로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아파트의 평수는 30평형대가 53.9%였고 40평형대는 39.4%, 50평형 이상은 6.8%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으며 평균 평수는 39.7평이었다. 아파트의 소유형태는 자가 94.2%로 조사대상 가구 대부분이 자가였다. 거주기간은 1년-2년 미만이 43.2%로 많았고, 4년 이상이 18.1%, 3년-4년 미만이 17.4%였으며, 평균 거주기간은 2.6년이었다.

2. 보조부역의 물리적 특성

보조부역의 부역과의 연결형태, 보조부역의 바닥 마감재 및 면적을 보조부역의 유형별로 살펴보았다<표 5>. 부역과 보조부역의 연결 형태는 전체적으로는 유리 미서기

표 4.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n = 310*

특성	구분	빈도(%)	특성	구분	빈도(%)
부인 연령	30대 이하	145(47.1)	부인 취업	취업	40(13.0)
	40대	117(38.0)		비취업	268(87.0)
	50대	37(12.0)	남편 직업	판매서비스직	68(22.9)
	60대 이상	9(2.9)		생산직	67(22.5)
	계	308(100.0)		사무직	124(41.8)
평균(S.D)	41.8(9.25)	전문직	22(7.4)		
남편 연령	30대 이하	85(29.3)	관리직	5(1.7)	
	40대	154(51.9)	기타	11(3.7)	
	50대	39(13.1)	계	297(100.0)	
	60대 이상	17(5.7)	평균(S.D)	46.2(13.45)	
	계	297(100.0)	소득 (만원)	300 미만	74(23.9)
가족 수	2-3명	65(20.9)		300-400미만	87(28.1)
	4명	195(63.0)		400-500미만	67(21.6)
	5명 이상	50(16.1)		500 이상	82(26.5)
	계	310(100.0)		계	310(100.0)
	평균(S.D)	3.9(.80)	주택 규모	30평형대	167(53.9)
가족 생활주기	신혼기	4(1.3)		40평형대	122(39.4)
	미취학아동기	57(18.4)		50평형 이상	21(6.8)
	초등교육기	107(34.5)		평균(S.D)	39.7(9.14)
	계	310(100.0)		소유 형태	자가
	중고등교육기	101(32.5)	타가		18(5.8)
성년기	41(13.2)	계	310(100.0)		
계	310(100.0)	거주 기간	1년 미만	21(6.8)	
부인 학력	고졸 이하		116(37.5)	1년-2년 미만	134(43.2)
	전문대졸		63(20.4)	2년-3년 미만	45(14.5)
	대졸 이상		130(42.1)	3년-4년 미만	54(17.4)
계	309(100.0)		4년 이상	56(18.1)	
남편 학력	고졸 이하	84(28.1)	계	310(100.0)	
	전문대졸	50(16.7)	평균(S.D)	2.6(25.59)	
	대졸 이상	165(55.2)			
계	299(100.0)				

*무응답 제외로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49.7%로 가장 많았으며, 유리 여닫이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37.4%, 목재 여닫이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9.4%, 문 없이 트여 있는 형태가 3.5%였다. 보조부엌의 유형별로 보면, 측면 배치형과 후면양방향 확대형의 경우는 유리 여닫이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각각 60.0%, 83.3%로 많았으며, 후면 배치형과 후면 일방향 확대형은 유리 미서기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각각 100.0%, 72.6%로 많았다.

보조부엌의 바닥 마감재는 전체적으로는 마루+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40.0%)와 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36.1%)가 많았고 장판 류+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도 20.0%였다. 보조부엌의 유형별로도 측면 배치형을 제외한 후면 배치형(53.3%), 후면 양방향 확대형(50.0%), 후면 일방향 확대형(37.1%)은 마루+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다음은 타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측면 배치형의 경우는 타일로 마감한 경우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마루+타일로 마감한 경우도 40%로 많았다.

보조부엌 공간의 면적은 30평형대, 40평형대, 50평형 이상의 3가지 평형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표집 상의 어

표 5. 보조부엌의 유형별 물리적 특성 n = 310*

물리적 특성	보조부엌 유형	측면 배치형	후면 배치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후면 일방향 확대형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부엌과의 연결형태	문 없이 트임	1 (1.1)	0 (0.0)	0 (0.0)	10 (5.7)	11 (3.5)	
	유리 미서기문	7 (7.8)	15 (100.0)	5 (16.7)	127 (72.6)	154 (49.7)	
	목재 여닫이문	28 (31.1)	0 (0.0)	0 (0.0)	1 (0.6)	29 (9.4)	
	유리 여닫이문	54 (60.0)	0 (0.0)	25 (83.3)	37 (21.1)	116 (37.4)	
	계	90 (100.0)	15 (100.0)	30 (100.0)	175 (100.0)	310 (100.0)	
바닥 마감재	마루+타일	36 (40.0)	8 (53.3)	15 (50.0)	63 (37.1)	124 (40.0)	
	장판류+타일	11 (12.2)	0 (0.0)	5 (16.7)	46 (26.3)	62 (20.0)	
	장판류	3 (3.3)	0 (0.0)	0 (0.0)	2 (1.1)	5 (1.6)	
	타일	39 (43.3)	7 (46.7)	8 (26.7)	58 (33.1)	112 (36.1)	
	마루	1 (1.1)	0 (0.0)	1 (3.3)	4 (2.3)	6 (1.9)	
	기타	0 (0.0)	0 (0.0)	1 (3.3)	0 (0.0)	1 (0.3)	
	계	90 (100.0)	15 (100.0)	30 (100.0)	175 (100.0)	310 (100.0)	
	면적* (m ² /평))	30평형대	7.37 (2.2)	-	11.20 (3.4)	9.49 (2.9)	9.35 (2.8)
		40평형대	9.41 (2.9)	10.79 (3.3)	-	13.70 (4.2)	11.30 (3.4)
		50평형이상	9.12 (2.8)	-	-	10.56 (3.2)	9.84 (3.0)
평균		8.63 (2.6)	10.79 (3.3)	11.20 (3.4)	11.25 (3.4)	10.16 (3.1)	
계							

*보조부엌의 면적에 제시된 수치는 (평)을 나타냄.

려움으로 인해 후면 배치형은 40평형대만 조사에 포함되었으며, 후면 양방향 확대형은 30평형대만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보조부엌의 면적은 40평형이 평균 3.4평으로 가장 넓었으며, 50평형 이상은 평균 3.0평, 30평형대는 2.8평이었다. 단위주거의 규모가 클수록 보조부엌의 면적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지만(심영섭·김두식, 2003), 본 연구에서는 평형별 표집이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평형대에 비해 50평형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보조부엌의 유형별 보조부엌의 평균 면적은 후면 양방향 확대형과 후면 일방향 확대형이 각각 평균 3.4평으로 가장 넓었고, 후면 배치형 3.3평, 측면 배치형 2.6평의 순이었다.

3. 보조부엌의 개조특성

보조부엌의 개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조 여부와 개조 내용, 개조 이유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표 6. 보조부엌의 유형별 개조 여부 n = 310

개조 여부	보조부엌 유형	측면 배치형	후면 배치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후면 일방향 확대형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개조한 적이 있다.		25 (27.8)	4 (26.7)	15 (50.0)	83 (47.4)	127 (41.0)
개조한 적이 없다.		61 (67.8)	7 (46.7)	14 (46.7)	81 (46.3)	163 (52.6)
이사오기 전 개조됨		4 (4.4)	4 (26.7)	1 (3.3)	11 (6.3)	20 (6.5)
계		90 (100.0)	15 (100.0)	30 (100.0)	175 (100.0)	310 (100.0)

1) 개조여부

<표 6>은 보조부엌의 개조 현황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넘는 52.6%가 '개조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개조한 적이 있다.'고 한 경우가 41.0%, '이사 오기 전부터 이미 개조되어 있었다'가 6.4%였다. 보조부엌의 유형별로 보면, 측면 배치형은 '개조한 적이 없다.'고 한 경우가 67.8%로 많은 반면, 나머지 유형의 경우는 47% 정도가 개조한 적이 없다고 하여 개조를 한 경우가 약간 많았다.

2) 개조내용

개조한 적이 있다고 한 127가구를 대상으로 개조 내용을 파악하였다<표 7>. 전체적으로는 바닥 마감재를 교체한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레인을 설치한 경우가 25.0%,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을 설치한 경우가 23.4%였다. 기타는 벽 마감재를 타일로 교체한 경우로 그 비율은 3.9%였다.

보조부엌의 유형별 개조 내용을 살펴보면 측면 배치형의 경우 벽 마감재 교체와 가스레인지 설치가 26.1%씩으로 많았고,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 설치도 24.6%로 많았다. 후면 배치형은 바닥 마감재 교체가 85.7%로 대부분이었다. 후면 양방향 확대형의 경우는 바닥 마감재 교체(50.0%)와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 설치(38.5%)가 많았다. 후면 일방향 확대형의 경우는 바닥 마감재 교체가 37.7%로 많았고, 가스레인지 설치가 29.3%,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 설치가 21.4%였다.

3) 개조이유

보조부엌을 개조한 이유는 수납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가 29.7%로 가장 많았고, 부엌을 넓게 쓰고 싶어서가 18.9%, 조리하기 불편해서가 17.7%, 부엌과의 이동이 불편해서가 14.3%였다. 보조부엌의 유형별로 보면, 4개 유형 모두 수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조부엌을 개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외에, 측면배치형은 부엌을 더 넓게 쓰고 싶어서(18.2%), 후면 배치형은 작업시 추워서(25.0%), 후면 양방향 확대형은 부엌과의 이동이 불편해서(36.8%), 후면 일방향 확대형은 조리하기 불편해서(22.1%)와 부엌을 더 넓게 쓰고 싶어서(21.2%) 개조를 한

표 7. 보조부엌의 유형별 개조 내용 n = 127*

개조 내용	보조부엌 유형	측면 배치형	후면 배치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후면 일방향 확대형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보조부엌 벽을 터서 부엌확장		1 (1.4)	0 (0.0)	1 (3.8)	4 (2.6)	6 (2.3)
보조부엌의 문 없앴		1 (1.4)	0 (0.0)	0 (0.0)	5 (3.2)	6 (2.3)
유리미서기문으로 교체		2 (2.9)	0 (0.0)	0 (0.0)	0 (0.0)	2 (0.8)
바닥 마감재 교체		18 (26.1)	6 (85.7)	13 (50.0)	58 (37.7)	95 (37.1)
난방설비·기기 설치		3 (4.3)	0 (0.0)	0 (0.0)	1 (0.6)	4 (1.6)
가스레인지 설치		18 (26.1)	1 (14.3)	0 (0.0)	45 (29.2)	64 (25.0)
환기후드 설치		3 (4.3)	0 (0.0)	0 (0.0)	1 (0.6)	4 (1.6)
세탁기용 불박이장 설치		2 (2.9)	0 (0.0)	1 (3.8)	2 (1.3)	5 (2.0)
수납선반/수납장 설치		17 (24.6)	0 (0.0)	10 (38.5)	33 (21.4)	60 (23.4)
기타		4 (5.8)	0 (0.0)	1 (3.8)	5 (3.2)	10 (3.9)
계**		69 (100.0)	7 (100.0)	26 (100.0)	154 (100.0)	256 (100.0)

*개조한 적이 있는 경우의 빈도

**다중응답으로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표 8. 보조부엌의 유형별 개조 이유 n = 127*

개조 이유	보조부엌 유형	측면 배치형	후면 배치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후면 일방향 확대형	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부엌 더 넓게 쓰려		8 (18.2)	1 (12.5)	2 (10.5)	22 (21.2)	33 (18.9)
부엌과의 이동불편		5 (11.4)	1 (12.5)	7 (36.8)	12 (11.5)	25 (14.3)
작업시 추워서		3 (6.8)	2 (25.0)	1 (5.3)	7 (6.7)	13 (7.4)
조리하기 불편해서		7 (15.9)	1 (12.5)	0 (0.0)	23 (22.1)	31 (17.7)
세탁하기 불편해서		3 (6.8)	0 (0.0)	0 (0.0)	3 (2.9)	6 (3.4)
수납공간 마련위해서		16 (36.4)	2 (25.0)	7 (36.8)	27 (26.0)	52 (29.7)
기타		2 (4.5)	1 (12.5)	2 (10.5)	10 (9.6)	15 (8.6)
계**		44 (100.0)	8 (100.0)	19 (100.0)	104 (100.0)	175 (100.0)

*개조한 적이 있는 경우의 빈도

**다중응답으로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원래는 전체가 타일로 마감되어 있던 보조부엌의 바닥을 거주자가 그 일부를 마루로 교체하여 그

표 9. 향후 개조 의향 여부 n = 163*

향후개조 의향	보조부엌 유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후면 일방향 확대형	계
	측면 배치형	후면 배치형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의향 있다.	26 (42.6)	0 (0.0)	7 (50.0)	40 (49.4)	73 (44.8)
의향 없다.	32 (52.5)	6 (85.7)	6 (42.9)	38 (46.9)	82 (50.3)
모르겠다	3 (4.9)	1 (14.3)	1 (7.1)	3 (3.7)	8 (4.9)
계	61 (100.0)	7 (100.0)	14 (100.0)	81 (100.0)	163 (100.0)

*개조한 적이 없는 경우의 빈도

공간을 수납에 사용하거나 또는 부엌에서의 가사작업을 보조부엌까지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조리하기가 불편해서 보조부엌을 개조한 경우는 부엌에서의 음식 조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부엌 공간에 별도의 가스레인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였다. 그 밖의 이유로는 미관상 또는 곰팡이 등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벽 마감재를 타일로 바꾼 경우가 있었다.

4. 희망하는 보조부엌의 개조내용

1) 개조 의향

보조부엌을 개조한 적이 없는 경우 향후 개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9>, ‘향후 개조할 의향이 없다’고 한 경우가 50.3%, ‘향후 개조할 의향이 있다’고 한 경우가 44.8%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보조부엌의 유형별 개조 의향을 보면, 측면 배치형과 후면 배치형의 경우는 개조 의향이 없는 비율이 52.5%와 85.7%로 의향이 있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후면 양방향 확대형과 후면 일방향 확대형은 이와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특히 후면 배치형의 경우 85.7%라는 압도적인 비율의 응답자가 개조 의향이 없다고 한 결과가 주목된다.

2) 희망 개조내용

보조부엌을 개조한 적은 없지만 향후 개조할 의향이 있는 73가구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개조내용에 대해 살펴본다<표 10>.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23.4%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레인지 설치 16.2%, 바닥 마감재 교체 13.2%, 세탁기용 불박이장 설치 10.2%의 순이었다.

보조부엌의 유형별로 보면, 측면 배치형은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23.7%, 가스레인지 설치 16.9%, 보조부엌 벽을 터서 부엌 확장 13.6%, 바닥 마감재 교체 11.9%의 순이었다. 후면 배치형은 개조를 할 의향이 있는 3가구 모두 가스레인지 설치를 희망하였는데, 이는 후면 배치형의 경우 가사작업대에 별도의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후면

표 10. 보조부엌의 유형별 희망 개조 내용 n = 73*

희망 개조 내용	보조부엌 유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후면 일방향 확대형	계
	측면 배치형	후면 배치형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보조부엌 벽을 터서 부엌확장	8 (13.6)	0 (0.0)	0 (0.0)	7 (7.8)	15 (9.0)
보조부엌의 문 없앰	2 (3.4)	0 (0.0)	2 (13.3)	5 (5.6)	9 (5.4)
유리 미서기문으로 교체	2 (3.4)	0 (0.0)	0 (0.0)	0 (0.0)	2 (1.2)
바닥 마감재 교체	7 (11.9)	0 (0.0)	3 (20.0)	12 (13.3)	22 (13.2)
난방설비·기기 설치	2 (3.4)	0 (0.0)	1 (6.7)	13 (14.4)	16 (9.6)
가스레인지 설치	10 (16.9)	3 (100.0)	4 (26.7)	10 (11.1)	27 (16.2)
환기후드 설치	5 (8.5)	0 (0.0)	1 (6.7)	6 (6.7)	12 (7.2)
세탁기용 불박이장 설치	4 (6.8)	0 (0.0)	0 (0.0)	13 (14.4)	17 (10.2)
수납선반/수납장 설치	14 (23.7)	0 (0.0)	3 (20.0)	22 (24.4)	39 (23.4)
기타	5 (8.5)	0 (0.0)	1 (6.7)	2 (2.2)	8 (4.8)
계**	59 (100.0)	3 (100.0)	15 (100.0)	90 (100.0)	167 (100.0)

*향후 개조할 의향이 있는 경우의 빈도

**다중응답으로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양방향 확대형 또한 가스레인지 설치를 원하는 경우가 26.7%, 바닥 마감재 교체 20.0%,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 설치 20.0%, 보조부엌의 문 없앰이 13.3%의 순이었다. 후면 일방향 확대형은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 설치가 24.4%로 가장 많았으며 난방설비·기기 설치와 세탁기용 불박이장 설치를 원하는 경우가 각각 14.4%였으며 바닥 마감재 교체가 13.3%였다. 즉 측면 배치형과 후면 일방향 확대형은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 설치를 가장 희망하는 반면, 후면 배치형과 후면 양방향 확대형은 가스레인지 설치를 가장 희망하였다.

3) 개조 희망 이유

보조부엌의 개조를 희망하는 이유는 수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2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부엌을 넓게 쓰고 싶어서 22.7%, 작업 시 추워서 14.1%, 조리하기가 불편해서 12.5%의 순이었다<표 11>. 이는 앞서 제시된 이미 개조를 한 경우의 개조 이유<표 8>와 유사한 이유이며 단지 순서에 있어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즉 개조를 한 경우는 바닥 마감재 교체, 가스레인지 설치,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 설치의 순인 반면, 향후 개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 설치, 가스레인지 설치, 바닥 마감재 교체의 순이었다.

보조부엌의 유형별로 보면, 측면 배치형의 경우는 수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28.9%로 가장 많았으며 부엌

표 11. 보조부엌의 유형별 희망 개조 이유 n = 163*

희망 개조 이유	보조부엌 유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계
	측면 배치형	후면 배치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후면 일방향 확대형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부엌 더 넓게 쓰려고	10 (22.2)	0 (0.0)	3 (20.0)	16 (24.6)	29 (22.7)
부엌과 이동 불편해서	5 (11.1)	0 (0.0)	3 (20.0)	5 (7.7)	13 (10.2)
작업 시 추워서	5 (11.1)	0 (0.0)	2 (13.3)	11 (16.9)	18 (14.1)
조리하기 불편해서	7 (15.6)	3 (100.0)	1 (6.7)	5 (7.7)	16 (12.5)
세탁하기 불편해서	4 (8.9)	0 (0.0)	1 (6.7)	4 (6.2)	9 (7.0)
수납공간 마련위해	13 (28.9)	0 (0.0)	3 (20.0)	20 (30.8)	36 (28.1)
기타	1 (2.2)	0 (0.0)	2 (13.3)	4 (6.2)	7 (5.5)
계**	45 (100.0)	3 (100.0)	15 (100.0)	65 (100.0)	128 (100.0)

*개조한 적이 없는 경우의 빈도

**다중응답으로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을 더 넓게 쓰고 싶어서 22.2%, 조리하기가 불편해서 15.6%의 순이었다. 후면 배치형은 3가구 모두 조리하기가 불편해서라고 하였고 후면 양방향 확대형은 부엌을 더 넓게 쓰고 싶어서, 부엌과의 이동이 불편해서, 수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각각 20.0%였다. 후면 일방향 확대형은 수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엌을 더 넓게 쓰고 싶어서가 24.6%, 작업 시 추워서가 16.9%였다. 즉 측면 배치형과 후면 일방향 확대형은 수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을 설치하길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4) 이사 전 개조된 내용 및 만족도

이사 오기 전부터 이미 보조부엌이 개조되어 있었던 20가구를 대상으로 그 내용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았다<표 12>.

개조 내용을 보면, 측면 배치형은 모두 5가구의 보조부엌이 개조되어 있었으며, 문이 유리 미서기문으로 교체되어 있는 경우가 40.0%(2가구)였고, 보조부엌 벽이 트여 있거나 세탁기용 불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20.0%(1가구)였다. 후면 배치형도 5가구가 개조되어 있었는데 문이 유리 미서기문으로 교체되어 있는 경우가 80.0%(4가구), 바닥 마감재가 교체되어 있는 경우가 20.0%(1가구)였다. 후면 양방향 확대형은 1가구가 개조되어 있었는데 바닥 마감재를 교체하였다. 후면 양방향 확대형의 경우는 개조를 한 경우나 이사 오기 전부터 이미 개조되어 있던 경우 모두 바닥 마감재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보조부엌을 가사지원 공간으로 사용함에 있어 매우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후면 일방향 확대형은 모두 26가구의 보조부엌이 개조되어 있었으며 문이 유리 미서

표 12. 이사 오기 전부터 개조되어 있는 경우 개조내용 n=20*

개조 내용	보조부엌 유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계
	측면 배치형	후면 배치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후면 일방향 확대형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보조부엌 벽이 트여 있었음	1 (20.0)	0 (0.0)	0 (0.0)	6 (23.1)	7 (18.9)
보조부엌 문 없었음	0 (0.0)	0 (0.0)	0 (0.0)	3 (11.5)	3 (8.1)
유리 미서기문으로 교체	2 (40.0)	4 (80.0)	0 (0.0)	7 (26.9)	13 (35.1)
바닥 마감재 교체	0 (0.0)	1 (20.0)	1 (100.0)	2 (7.7)	4 (10.8)
별도 난방 설비기기 설치	0 (0.0)	0 (0.0)	0 (0.0)	5 (19.2)	5 (13.5)
별도 가스레인지 설치	0 (0.0)	0 (0.0)	0 (0.0)	0 (0.0)	0 (0.0)
별도 환기후드 설치	1 (20.0)	0 (0.0)	0 (0.0)	0 (0.0)	1 (2.7)
세탁기용 불박이장 설치	1 (20.0)	0 (0.0)	0 (0.0)	1 (3.8)	2 (5.4)
별도 수납선반/장 설치	0 (0.0)	0 (0.0)	0 (0.0)	2 (7.7)	2 (5.4)
기타	0 (0.0)	0 (0.0)	0 (0.0)	0 (0.0)	0 (0.0)
계**	5 (100.0)	5 (100.0)	1 (100.0)	26 (100.0)	37 (100.0)

*이사 오기 전부터 이미 개조되어 있었던 경우의 빈도

**다중응답으로 변수별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표 13. 이사 오기 전 개조된 경우 개조 만족도 n=20*

보조부엌 유형	측면 배치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계
	측면 배치형	후면 배치형	후면 양방향 확대형	후면 일방향 확대형	
개조 내용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매우 만족	2 (50.0)	0 (0.0)	0 (0.0)	2 (18.2)	4 (20.0)
만족	1 (25.0)	0 (0.0)	1 (100.0)	6 (54.5)	8 (40.0)
보통	1 (25.0)	4 (100.0)	0 (0.0)	3 (27.3)	8 (40.0)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0 (0.0)
매우 불만족	0 (0.0)	0 (0.0)	0 (0.0)	0 (0.0)	0 (0.0)
평균(S.D)	4.25 (.56)	3.00 (.00)	4.00 (.00)	3.91 (.70)	3.8 (.77)

기문으로 교체되어 있던 경우가 26.9%(7가구), 보조부엌 벽이 트여져 있던 경우가 23.1%(6가구), 별도의 난방 설비·기기가 설치되어 있던 경우가 19.2%(5가구)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는 문이 유리 미서기문으로 교체된 비율이 35.1%였고 보조부엌 벽이 트여져 있었거나(18.9%) 별도의 난방설비·기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13.5%)도 많았다.

이사 오기 전 이미 개조된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측면

배치형 보조부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4.25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후면 양방향 배치형 4.00, 후면 일방향 배치형 3.91, 후면 배치형 3.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만족도는 3.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90년대 후반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 보조부역에 대한 평가를 보조부역의 유형별 개조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부역의 유형별 물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보조부역의 평균 면적은 측면 배치형 2.6평을 제외하고는 모두 3.3~3.4평으로 조사되었다. 부역과의 연결은 측면 배치형과 후면양방향 확대형의 경우 유리 여닫이문 형태가 많았으며 후면 배치형과 후면 일방향 확대형은 유리 미서기문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보조부역의 바닥 마감재는 측면 배치형 외에는 모든 유형에서 마루와 타일을 함께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타일이 차지하였다. 한편 측면 배치형의 경우는 타일로 마감한 경우와 마루와 타일을 혼합해서 사용한 경우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둘째, 전체 조사대상의 약 40%정도가 보조부역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사 오기 전부터 이미 개조가 이루어진 사례까지 감안하면 50% 정도의 보조부역이 개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후면 양방향 확대형과 후면 일방향 확대형이 측면 배치형이나 후면 배치형에 비해 개조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조 내용으로는 유형에 상관없이 바닥 마감재 교체가 단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스레인지 설치하는 후면 양방향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그리고 수납선반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후면 배치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비율은 높지 않았다. 개조이유는 4개 유형 모두 수납공간 확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역을 더 넓게 쓰고 싶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향후 보조부역의 개조에 대해서는 측면 배치형과 후면 배치형은 향후에도 대부분 개조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면 양방향 확대형과 후면 일방향 확대형은 가스레인지 설치와 수납선반 또는 수납장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보조부역의 유형에 상관없이 수납에 대한 요구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이를 위해 수납선반을 달거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의 개조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보조부역에서의 효율적인 수납을 위해 필요 시설과 설비가 입주 시부터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후면 양방향 확대형의 경우 세탁 작업에 필요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단 세탁과 수납이

보조부역에서 함께 이루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배수나 습기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조부역은 현재 취사에는 전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으나 취사 기능에 대한 요구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취사 작업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스레인지나 환기시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그 1차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다 하여도 공간이 협소하고 재료나 양념, 조리된 음식 등을 옮기는데 필요한 부역이나 식탁 등과의 동선이 불편하며 겨울에는 난방이 되지 않는 등 취사를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조부역의 취사로 강조되고 있는 취사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취사를 위한 제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지원이 계획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보조부역의 유형별 개조특성이라는 물리적 측면만을 분석한 기초연구라는 제한을 갖는다. 향후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나 주거특성 등의 맥락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된다면 보조부역 계획에 더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조사대상을 2004년 10월말 이전까지 입주한 3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로 국한시켰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서는 입주 시기와 평형을 보다 확대하여 조사대상을 표집 함으로써 결과의 일반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김은중(2003), 아파트 전용면적 확대공사 행위의 형태와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37, 55-62.
2. 김진영(2004), 아파트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가사작업 공간 사용행태와 의식. 건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 김진영·강순주(2005), 아파트 거주자의 가사작업 공간 사용행태와 의식. 대한가정학회지, 43(4), 17-30.
4. 박영순·이현정·김미경·조은숙(2003), 아파트 상품 디자인 개발을 위한 소비자 트렌드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1, 129-136.
5. 백혜선·박광재(2000), 한국 공동주택에서 다용도실의 성립과 변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3), 11-20.
6. 성기용(1998), 우리나라 소규모아파트의 서비스 공간에 관한 연구-욕실과 다용도실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8), 23-30.
7. 소윤경(2000),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위주호의 공간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소윤경·하미경(2002),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단위평면의 공간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3), 45-53.
9. 신소영(2002), 아파트 수납공간에 대한 소비자 평가-30평형대의 불박이 수납공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심영섭·김두식(2003), 초고층아파트의 평면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서울 및 수도권 20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1, 112-120.

11. 오혜경 · 김도연(2001), 고급형 아파트의 평면 구성 특성 및 실내디자인 경향.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7, 111-119.
12. 이연숙 · 이지영 · 박남희 · 방희조(2004), 아파트 차별화 계획요소에 대한 거주자 의식조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6), 91-98.
13. 이주희(2005), 아파트 보조부엌의 유형별 공간 이용실태 및 요구.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 최세미 · 이지순 · 윤정숙(2001), 아파트 규모별 발코니공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2(3), 29-39.
15. 한지영(2002), 가사행태를 통해 본 아파트 가사 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6. 황인환 · 박인석(1999), 우리나라 아파트 발코니계획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발코니계획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2), 463-468.
17. www.ulsan.go.kr(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接受: 2006. 12. 4)